

# 광주 대중음악 인재 육성 '음악창작소' 만든다

시, 정부 공모 사업 선정...내년 5월까지 25억 투자 추진

음악스튜디오·공연장 등 갖춰...지역 음악산업 허브 구축

광주에 대중음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음악창작소'가 들어선다. 음악창작소는 지역 기반의 음악 창작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음악 산업의 허브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광주시와 부산시가 선정됐다. 음악창작소 조성사업은 국비 10억원과 지방비 15억원 등 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오는 6월부터 2015년 5월까

지 추진할 계획이다. 음악창작소는 대중 음악의 지속적인 발전과 다양하고 실험적 음악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창작에서 음반 완료 단계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제공되고 교육,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등이 지원된다. 광주시가 신청한 '광주 VIEW 음악창작소'는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인재발굴-기획-제작-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해 지역 기반의 음악 창작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공유와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음악 산업의

허브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이다. 음악창작소 조성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 기관으로 지정돼 사직공원에 위치한 콘텐츠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영상복합문화관과 CGI센터 등 총 2866㎡ 규모로 지역 음악인의 다양한 창작 활동을 지원할 교육 공간, 음악스튜디오, 연습실, 공연장, 라운지 등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운영프로그램으로는 ▲음악 재능 인재 발굴을 위해 정기적으로 공개오디션 개최 ▲지역 수요 기반의 컨서버토리(음악교육기관) 수준의 실질적 음악교육과 음반 및 음원 제작 지원 ▲실현적인 라이브 공연·음악방송 연계 지원·콜라보레이션 공연 등을 지원하고,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활용한 통합 마케팅을 통해 수익화가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 VIEW 음악창작소'는 음악 클러스터와 결합한 특화전략을 통해 규모의 확장과 다양한 창작자와 글로벌 상품을 발굴해 지속 성장 가능한 국제적 음악 관광명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오순철 광주시 문화산업과장은 "음악창작소 조성 사업을 계기로 광주시의 5대 전략 콘텐츠 중 하나인 음악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입체적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음악 창작자들의 지속적인 재생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음악창작소의 역할인 만큼 실질적인 창작 공연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 음악산업 환경 개선에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영구임대아파트 저소득층 대상

## '찾아가는 서비스' 큰 호응

전기·수도시설 등 점검

광주도시공사(사장 홍기남)는 최근 영구임대아파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대내 시설물 점검, 소모품 교체 등 입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찾아가는 서비스(사진)'를 실시했다. 이번 '찾아가는 서비스'는 도시공사 기술직 직원들이 각 분야별로 1단지 1반을 편성해 20일 동안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 취약계층 158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점검은 각 세대의 전기시설, 소방설비, 수도시설, 각종 소모품 교체 등 입주민들이 평소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을 개선해 도움을 주었다. 특히 각 단지 공용시설인 경로당과

복지관에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해주고, 또 다가오는 여름철을 대비해 방역과 소독을 실시해 청결한 환경을 제공했다. 도시공사는 매년 2회씩 '찾아가는 서비스'를 관리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 실시하고 있으나 요청하는 세대가 많아 수요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 하반기에는 대상자를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도시공사 홍기남 사장은 "이번 찾아가는서비스는 창조적 행복복지 추진 과제 중 하나로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과제를 지속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게 적극적인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도로명주소 사용합시다" 광주시는 최근 양동시장에서 서구와 합동으로 시·구 공무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을 방문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광주시 제공>

## '어린이 영상체험관' 연중 운영

광주CCTV관제센터, 유치원생·초등 저학년 대상

범죄로부터 자신 보호·위급 상황시 대처능력 키워

광주CCTV통합관제센터는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어린이 영상체험관'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어린이 영상체험관은 ▲광주CCTV통합관제센터 견학 ▲여러 가지 행동과 변화 등을 인지·분석해 위험상황을 알려주는 '능형 관제시스템' 체험 ▲사람 얼굴을 인식해서 동인 인물을 찾아내는 '안면

인식 솔루션'(30m 거리 영상을 판별해 범죄자 검거와 마이식별등 활용 가능)을 이용한 달은꼴 찾기 ▲위급한 상황 발생시 비상벨을 눌러 관제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상벨 조작 체험 등 어린이 안전 체험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 예약 신청과 문의는 광주CCTV통합관제센터 어린이 영상체험관(062-712-0100)으로 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어린이집 안전관리 수칙' 안내 소책자 배부

시·구청 민원실에도

광주시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이의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어린이집 안전관리 수칙' 안내 소책자(리플릿)를 5000매 제작해 어린이집 1254곳과 광주유아종합지원센터, 시·구청 민원실 등에 배부했다. 안내 소책자에는 ▲태풍, 폭염, 홍수 등 재난관리 요령 ▲보육실, 식당 등 실내공간 안전 ▲놀이대, 차량 등 실외공간 안전 ▲안전사고 응급대처 요령 ▲안전관리 전문기관 안내 등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행동 요령을 담았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어

린이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모든 어린이집 안전문제해결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점남 광주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 "안심보육시설 구축을 위해 더욱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학부모와 보육 교직원이 실천해야 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서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두암신협**  
**50억 한시 특판**

정기예탁금 1년 **3.1%**  
알찬예탁금 최고 **2.9%**  
수시입출금통장

**더 높은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두 암 신 협**  
본 점 : 263-0136 (말바우 사거리)  
울곡지점 : 264-1232 (두암중학교 입구)  
첨단지점 : 572-9511 (호반아파트 정문 맞은편)

NAVER **광주 소리큐**

국내개발 | 국내생산  
**NEW soriQ** (음성증폭기) 제품 모델명 **S20, S22, ST33**

TV시청할때 강의를 들때 핸드폰 통화할때 대화·상담할때

찾아오시는 길 전남대병원 맞은편 본죽2층

동구청 구도청 남광주 남평로 전남대 병원 소리큐보청기 화순

**소리큐 보청기광주 호남총판** 062) 227-1700